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종전 선언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추진 전략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오늘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 3조 ③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6·12 싱가포르 센토사섬 공동성명 3조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종전 선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 준다.

종전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장내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의지와 추진 방향의 원칙 정도만 담으면 된다. 종전 선언은 민감한 문제이고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시기·장소·내용 등은 당사국인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유관국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한국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연계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평화협정을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남북 간, 북미 간 '불가침 확약'이 내용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종전 선언은 남·북·미 3자 방식으로 하고 평화 협정은 남·북·미·중 4자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 북미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구로 간주한다.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 보장책으로 미국의 불가침 확약이 포함된 종전 선언을 원한다. 비핵화의 명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의 조속한 선언을 촉구한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면 대북 군사적 옵션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아직 구체적인 내부적 논의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중국이 배제된 종전 선언을 선호한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종전의 시작에서부터 참여를 요구한다. 종전 선언 참여 문제를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자 종전 선언, 4자 평화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 선언만 한다면 3자 방식이든 4자 방식이든 큰 문제가 없다. 종전 선언이 평화 협정 체결과의 선후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우선론'이 현실적인 방식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미래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한반도 접경 국가로서 통일 이후에도 협조가 중요하다. 정전협정 제5조 61항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4자 우선론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8·15 전후 대북 및 대미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간 빅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핵 동결 선언과 미국의 종전 선언은 충분한 교환 가치가 있다. 종전 선언 내용에 불가침 확약 문제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추진의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 불가침 확약을 삭제하는 대신 사드 철수, 첨단 무기 신규 도입 보류 등 북한이 수용 가능한 형식의 군사적 안전 보장도 하나의 방안이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대북 제재 해제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은 최우선적으로 개성 공단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평화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8만4천개의 일자리를 보장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전략적 수단을 완화·철회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협력의 중재자 또는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북한에게는 체제 안전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고 미국에게는 비핵화에 대한 보증이 요구된다. 교차 보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교칼럼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밖에 없다

장 형 규
원불교 사무국장

며칠 전 서울에 일이 있어 기차를 타고 올라가던 중, 뒤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좌석에 앉은 사람끼리 내 좌석이 맞다며 다투고 있었다. 승무원이 와서 정리를 해주어 그 후론 조용하게 용산까지 갈 수 있었다. 용산에 도착하니 기차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잊은 물건 없으신지 잘 살펴주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방송이 나오자 승객들은 모두 자기 짐을 꾸려서 기차에서 내리고 승무원은 의자를 정리하면서 빨리 내리라는 무언의 말을 전한다.

기차의 티켓을 끊어 열차가 운행될 때에는 그 자리가 나의 소유이고 내 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티켓의 유효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자리는 내 자리라 할 수 없다. 도착하고 나서도 그 자리가 내 자리라 생각하며 앉아 있다간 기차 청소부에게 핀잔을 들을 것이 뻔하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러하다. 살아가면서 돈, 권력, 명예가 삶의 전부 일 것 같으나 언젠가는 그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도리어 그것들이 살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나의 마음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리 몸도 한순간 머무르지 않고 생성소멸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슬프더라도, 지금 외롭더라도, 혹은 지금 기쁘더라도 지금의 마음에 집착해 미래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요즘 우스갯소리 말 중에 신혼 초의 사랑을 빗댄 '너 없이는 못살아'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신혼 생활을 마치고 3년만 지나면 '너 때문에 못살아'로 바뀐다고들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 삶의 이치인 것이다.

이러한 변하는 이치를 알아서 그 변화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확장이 된다. 하지만 그 반대로 변하는 이치를 모르고 집착하면 화병이 생기게 된다. 마음의 병인 '화병'은 영국 옥스퍼드사전에 'Hwa-Byung'(화병)이란 철자로 등재될 만큼 한국 문화에만 있는 특이한 질환이다. 그러나 몇 해 전 정식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는 등재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에게 많은 화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리랑은 한(恨)이라는 정서를 담은 노래이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라는 부분에서 보듯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상황을 막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은 혼자만 속을 태우는 애환에 다름아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그에게 맞는 다른 임을 만나서 잘 살 수 있도록 축원 기도 해주고, 나는 변화에 빨리 적응해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아리랑 노래가 단지 남녀의 애증만을 다룬 노래가 아니기에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아리랑이 있을까?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수많은 아리랑이 있을 것이다.

마음 병의 원인은 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상대방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햇빛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 내가 서있을 때 비로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내 마음에 집착된 마음, 욕심 된 마음이 있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내 자신에게 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등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마음에 화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을 때는 집착을 놓고 변화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는 종착점에 다다르고 그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 하지만 기차의 좌석을 화려하게 꾸민들 내리고 나면 허망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은 기차의 좌석이 아니라 기차에 타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진정으로 기차 창밖의 경치를 즐기며 여유롭게 삶의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기 고

'갓모르 파티'를 아시나요?

김 광 호
여수 여양고 교사

요즘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가 있다. 가수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이다. 일명 '갓연자'와 '갓모르 파티'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갓(God)-'은 단어에 연결되는 대상이 뛰어나고 대단함을 강조할 때 쓴다. 이 노래가 인기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아모르 파티'는 리듬이 좋고 듣기가 쉬우며 한국인의 정서와도 맞다. 어렵지 않은 철학적 내용과 일상의 소중함을 담고 있는 가사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

나는 학업에 지쳐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잠시 들려주었다. 이 노래를 감상한 K양은 "아모르 파티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따라 부르니 한결 기분이 좋아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고 말했고, H양은 "아모르 파티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죽은 프리드리히 니체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나는 오늘부터 니체보다 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고 의미심장한 멘트를 던졌다.

다행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삶을 음미하고 재해석하니 말이다. 제자들에게 고대 그리스인이 마음에 새겼던 금언을 하나 더 들려준다. "현재를 즐겨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일을 사는 나의 모습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행복해하고 현세를 즐기면 큰 죄를 받을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야단이다. 특히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또한 이런 삶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등등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삶을 인고의 시간으로 꽁꽁 동여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자세일까?

'아모르 파티'의 노래 가사를 잠시 음미해보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라고 말하면서 삶의 긍정을 노래한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다. 결국 '아모르 파티'는 희로애락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을 찬양하자는 우리의 소박한 가치관을 담고 있다.

이 노래는 '인생은 한 번 뿐이다'라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봄에 꽃이 한 번 피면 지듯이 사람도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날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아모르 파티'가 쓰였던 문장을 찾아보자.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시민들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삶을 재해석한다. 그는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영웅들도 모두 죽음과 마지막 운명에 저항하지 못했다. 나는 고통을 당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명예를 남길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할 것이다. 아모르 파티!(AMOR FATI!)'라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도 인생의 의미를 재정의 한다. 그는 레온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이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어떤 이는 승리를 얻기 위해 경기를 하러 오고,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러 온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이는 축제를 보기 위해 오는 관람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노예 근성을 타고난 이들은 화려한 명성과 물질적 풍요를 좇아가지만, 진정 앎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다."

지금까지의 호메로스와 프로타고라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삶과 운명애(運命愛)는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 더덩실 신명나게 춤을 추며 살아보자는 의미로 재창조할 수 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 참자아가 "너는 매순간 앎에게 삶을 묻고 카르페 디엠과 아모르 파티를 즐겨라"고 담대하게 말할 것이다.

더불어 기성세대에게 부탁하고 싶다.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폐쇄적인 운명보다는 개방적인 운명을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전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때그때 현실을 충실히 즐겨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주었으면 좋겠다.

社 說

5·18 당시 전두환 서명 문서가 말해 주는 것

40년이 다 되도록 5·18민주화운동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문서가 최근 발굴됐다. 이 문서는 80년 5월 18일 이후 계엄 상황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경찰관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담은 것으로, 문서 하단에는 전두환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공개한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의 '직무유기 경찰관 보고' 문건을 보면 표지에 당시 사령관 전두환의 사인이 있다. 이는 그가 5월 관련 사안에 대해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문서는 80년 5·18 당시 고(故) 이준규 목포서장을 직무유기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모두 3쪽짜리인 보고서 내용을 간추리면, 이 서장은 5월 21일 오전 지역 대책회의에서 목포 외곽 저지선을 보호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복 경찰관 3명만을 배치해 시위대를 통과시키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해 이 서장은 파면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했고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숨졌다.

전두환은 그동안 회고록 등을 통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그 어느 시간에도,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80년 당시 경찰관 동향까지 보고받을 정도면 전두환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를,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 등을 그가 직접 지시한 흔적들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대중교통 계획 탁상에서 맴돌아서야

광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탁상에서 맴돌고 있다. 이미 수립된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말뿐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가 마련한 제2차 광주시 대중교통계획(2012~2016년)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버스전용차로 개선, 자동차 통행 감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등의 정책이 있다. 또 중장기 사업으로 광주광역권 BRT(급행간선버스시스템) 도입, 광주권 광역철도 건설,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 자동차 공동 운행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중장기 사업은 물론 단기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 심각한 것은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구도심에 집중된 노선과 중복 노선의 재배치, 시내버스 노선과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계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5년 동안 한 것이 없다 보니 제3차 대중교통계획(2017~2021년)은 아예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집행도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집행한 예산도 절반가량이 경상비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에 쓰였을 뿐이다.

광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탁상 행정에 머문 원인은 2차 대중교통계획의 핵심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벌인 탓이 클 것이다. 여기에 민선 6기 광주시의 행정이 광주형 일자리 등 일부 핵심 과제에 집중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된 만큼 광주시는 이제부터라도 대중교통 정책을 꼼꼼히 재점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열일곱 살 이강인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 데뷔 골을 넣은 것은 2005년. 불과 열일곱 살 때의 일이다. 종료 2분을 남기고 투입된 메시에게 호나우지뉴가 다가와 속삭였다. "꼬마야. 1군에 온 걸 축하해. 너한테 패스해 줄게." 메시는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호나우지뉴의 절묘한 패스를 이어받아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로빙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호나우지뉴는 메시를 어린아이처럼 등에 업고 경기장을 빙빙 돌며 캄프누에 가득 찬 팬들의 환호에 답했다.

축구의 슈퍼스타들은 공교롭게도 열일곱 살 때부터 이름을 알렸다. 17세 되던 해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1군 무대를 밟은 호날두는 데뷔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쳐 맨유 퍼거슨 감독의 눈을 사로잡았고, 펠레는 17세에 스웨덴 월드컵에서 준결승전 해트트릭과 결승전 두 골 등 여섯 골을 넣어 브라질에 줄리메컵을 안겼다. 마라도나도 17세의 나이에 팀의 주장을 맡아 아르헨티나 리그 MVP가 됐다.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17세 소년 이강인이 지난 25일 스페인 프로 축구 발렌시아에서 1군 무대에 데뷔했다. '박쥐 군단'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라리가 4위를 차지한 명문 구단. "이강인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1군에 오른 아시아 선수다. 1군 데뷔전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경기 뒤 구단 홈페이지에 오른 글이다. 구단은 또 이강인과 2022년까지 재계약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를 데려갈 때 지불해야 하는 최소 이적료 '바이아웃'을 8000만 유로(1058억 원)로 책정했다. 그를 팀의 미래로 생각하고 키우겠다는 의미다.

이강인은 일곱 살 때 KBS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축구 천재로 주목받았고 열 살이 되던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한 뒤 꾸준히 성장했다. 173㎝의 단신이지만 드리블과 킥, 그리고 패스 능력 등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최상급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가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스페인 프로 축구에서 모두의 기대만큼 성장해 준다면 한국 축구는 또 한 명의 설레는 슈퍼스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제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